

서사무용극 '하늘연인' 감상하세요

28일 정읍 산외면 김동수가옥 옆 '예가인' 에서 공연

오는 28일 저녁 8시 고즈넉한 한옥과 달빛을 배경으로 전통무용을 감상할 수 있는 야간 상설공연이 정읍에서 열린다.

(사)한옥마을사람들은 아흔이홉간집으로 유명한 산외면 김동수가옥(중요민속자료 제26호) 인근 전통예술체험공간인 '예가인'에서 서사무용극 '하늘연인'을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이달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되는 '한옥자원 활용사업' 공연의 첫 일이다. 전체공연일정은 10월 8일까지 이어지는 데 매주 토요일 저녁 펼쳐진다. 여름 휴가기간인 7월~8월과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에는 금요일 밤에도 공연된다.

'하늘연인'은 조선시대 단종 비인 정순왕후(정음 철보 출신)의 비극적인 일생과 아련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서사무용극이다. 작품 감상의 즐거움과 함께 정음의 대표 한옥 자원인 김동수 가옥과 고택의 아름다움도 만끽할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품의 테마인 정순왕후(定順王后 1440~1521)는 숙부인 수양대군(세조, 1417~1468)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극적인 삶을 살다간 조선 제6대 임금인 단종(1441~1457)의 비이다.

본관은 여산 송(宋)씨, 태산선비문화의 중심인 칠보면 시산리 동편마을이 태생지이다. 판돈부사 송현수의 딸로 삼공이 공손하고 검소하며 남다른 효우를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단종이 유배돼 죽음을 맞이하자 왕후로서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말년을 외롭게 살다 생을 마감해 후세에 많은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다.

시는 태산선비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태생지 정비사업 등을 통해 '정순왕후의 태생지 정음'을 널리 알리고 있기도 하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사릉리에 잠들어 있고, 단종의 유배지였던 강원도 영월군은 매년 4월중 개최하는 단종문화제에서 정순왕후 선발대회도 열어 정순왕후의 후덕을 기리고 있다.

한편 공연이 펼쳐지는 인근에 자리한 김동수 가옥은 김동수의 6대 할아버지인 김명관이 조선 정조 8년(1784)에 세운 집이다. 뒤쪽으로 창하산이 있고 앞쪽에는 동진강 상류가 흐르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풍수지리에서 명당이라 말하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를 이루고 있다.

소박한 구조와 건축가의 독창성, 조선 후기 사대부 가옥의 중후한 모습을 대체로



정읍 산외면 김동수가옥 인근 전통예술체험공간인 '예가인'에서 서사무용극 '하늘연인'을 공연하고 있다.

원형대로 잘 유지하고 있어 건축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좋은 연구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공연작품은 서사 무용극이라는 장르를 유지하면서 배우들의 목소리와 노래를 담은 음악과 미디어 파사드(Media-Facade) 영상을 도입해 아름다운 한옥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영상을 제공, 관객의 작품 이해와 재미를 더해준다.

입장료는 성인 2만원, 청소년 및 65세 이상 어르신 1만5천원이며, 정읍시민에게는 50%, 전북도민에게는 30% 특별 할인 될

예정이다(신분증 지참). 관람객 1인 당 색색의 고풍이 엮여진 국수와 정음 자생차로 차려진 상이 제공된다.

또한, 이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인견 천연염색 속바지 및 조각상보도 티켓과 연계해 최대 5천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육선 및 G마켓 등에서의 티켓 할인이 가능하고 전북관광패스카드와 문화누리카드 이용도 가능하다. 티켓 관련 문의는 예가인(☎063.532-1248). /정음=김대환 기자

군산시립예술단, 내일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군산시립예술단(단장 김양원 부시장은) 20일 오후 2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관광객 및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 시립교향악단은 1930년대 모던컨셉으로 일제강점기의 박-밴드 음악을, 시립합창단은 재미있는 콩트와 함께 추억이 있는 노래를 연주한다.

시립교향악단은 '군산브라더스 박-밴드'라는 부제로 영터리 대학생, 개고기 주사 등 근대 대중가요와 재즈송 La Bamba, 스윙재즈 SING SING SING, 스윙 매들리 등을 연주한다.

시립합창단은 '군산합창별곡'이란 부제로 경쾌한 음악 푸니쿨리 푸니쿨라로 플라시모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또한 번사가 '빈대떡 신사'를 구성하고 재미난 콩트와 함께 연출하며, 국민가수 이미지씨가 초청기에 부른 가요 '금강 나그네'를 부를 예정이다. /군산=문정근 기자

작년 콘텐츠 산업 수출액 58억달러

지난해 국내 콘텐츠산업 전체 매출액은 99조5000억원, 수출액은 58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8일 내놓은 '2014년 4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체 매출액과 수출액은 전년보다 각각 4.8%, 10.5%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과 같은 기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27조6000억원이었다. 수출액은 7000만달러 증가한 16억2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6.1%, 4.5% 증가했다.

콘텐츠산업 매출성장률에 견인한 분야는 영화(38.2%), 광고(22.5%), 음악(17.9%) 순이었다. 수출부문에서는 영화(169.5%), 애니메이션(110.3%), 캐릭터(33.2%) 등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

콘텐츠 시장 매출액은 20.4%(7조1806억원), 수출액은 20.8%(5억3355만달러)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6%(7862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콘텐츠 시장 매출액은 25조1477억원으로 전년보다 12.6%, 수출액은 18억 6627만달러로 전년보다 18.4% 성장했다. 콘텐츠 시장 영업이익률은 11.08%로 전체 시장 영업이익률 5.82%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콘텐츠 시장 매출액은 전 분야에서 매출이 전년과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특히 애니메이션·캐릭터(58.0%)의 성장률이 두드러졌다. 연간 기준으로는 애니메이션·캐릭터(37.7%), 광고(25.7%), 영화(23.2%) 등의 매출이 높았다. /인진수 기자



'채식주의자' 전자책 판매 '돌풍'

수상발표 하루만에 1401부 팔려

소설가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작 '채식주의자'가 전자책(e북)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18일 전자책 서점 리더북스에 따르면 수상 소식이 전해진 17일 하루에만 채식주의자 전자책이 1401부 팔렸다.

채식주의자는 지난 2014년 전자책으로 처음 발간됐는데 수상 직전인 16일까지 팔린 누적 판매량은 1040권이었으나 수상발표 하루만에 기존 실적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수상당일 판매된 1401부 가운데 절반은

오후 3시 이후 판매됐다. 채식주의자 종이책이 품절되면서 전자책 수요가 올라가고, 모바일 기기로 작품을 읽는 독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편 출판업계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출판사 창작과비평사는 종이책 추가 인쇄에 들어갔고, 오프라인 서점과 전자책 업계는 한강 작가 특별전을 진행하며 맨부커상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다.

예스24에 따르면 채식주의자는 수상 당일 1분당 9.6권이 팔리며 '최근 15년간 가장 빠르게 팔린 책'으로 선정됐다. 기존에는 '안철수의 생각'(2012년) 판매량이 1분당 9.4권으로 가장 많았다. /인진수 기자

싱그러운 자연속 '영화 소풍'

무주산골영화제 내달 2일 개막

말간 자연 속을 노닐며 영화를 볼 수 있는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가 6월 초 시작된다. 영화제 포스터는 '산골·캠핑·영화'라는 무주산골영화제의 특별한 산속 영화관의 느낌을 살렸다. 이와 함께 예매달도빛으로 영화제 고유의 색상을 표현하여 초여름의 싱그러움을 담았다.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영화제 구성안을 발표했다. 영화제의 컨셉트는 영화야 소풍갈래? <산림> 가득한 영화 소풍길을 따라 깊은 <울림>을 발견하는 <어울림>으로 축제는 6월 2일~6일까지 열리게 된다.

행사장소는 실내상영관 무주예체문화관 대공연장, 무주산골영화관(반디관·태권관) 전통문화의 집 4개소를 비롯해 야외산영관인 무주드나무운동장,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야영장 내 대집회장 2개소 그리고 이동상영관인 무주반딧불시장, 안성면 두문마을 등 총 8곳이며 모든 상영관은 무료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창, 판, 락, 숲, 길 총 5개의 색선으로 구분되며 27개국 총 82편(한국영화 27편, 외국영화 55편의 영화(장편영화 60편, 단편영화 6편, 다큐멘터리 11편, 애니메이션 5편)가 상영된다.

이와 관련 올해는 '시네마 리플레이: 좋은 영화 다시보기'를 강화해 개봉영화의 범람 속에서 관객의 시선을 끌지 못하고 관심 밖으로 사라져 버린 국내외 다영성 영화 등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했다. /정해은 기자



개막작은 <2016년 필름 판소리, 춘향전>으로 신상욱 감독의 1961년작 성춘향을 토대로 김태용(민추, 2010년) 감독이 영화와 판소리, 라이브 연주를 가미해 북학문화공연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날 자리에는 유기하 집행위원장, 조지훈 프로그래머, 신동환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유기하 집행위원장은 "영화축제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도시 중심으로 개최된다. 이 영화제를 통해 무주 같은 작은 지역에서도 영화제가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무주산골영화제가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정해은 기자

전통문화전당, 전주 혼례음식교육과정 개설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식창의센터는 19일부터~8월 25일까지 3개월 여간 전주전통음식에 관심 있는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센터 시무방(조리체험실)에서 '전주혼례음식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전주혼례음식문화는 이 지역의 부유한 토반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음식 종류가 많고 화려하다. 이번 교육은 이런 전주혼례음식의 화려함과 넉넉함, 정갈함의 맛을 보존하고 혼례음식 문화를 필수 체험함으로써 전통음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기획했다.

매주 1회씩 총 15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전주 혼례음식명인 지정자인 신복자 명인이 강사로 나서 전주 혼례음식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 배우고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첫 회 '오징어 꽃오림 만들기'에서는 꽃오림에 대한 기초, 2회 때는 장미꽃 오림을 비롯해 폐백떡, 폐백상 차림, 구름떡, 구름판 등 전주 혼례음식 전반에 대한 교육이 13회까지 이어진다.

14회 교육에서는 자신의 개인작품을 완성해 전시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한식창의센터 시무방 전문교육프로그램은 전당 홈페이지(www.kttcc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한식창의센터 시무방(281-15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5월 19일)

<p>▷쥐띠 46년생: 자신과 뜻이 맞는 동기를 만나는 좋은 운이다. 60년생: 작게 움직이는 것이 좋은 운이다. 72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곤란한 일이 발생하니 주의 깊게 살피고 행동하라. 84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때다.</p>	<p>▷소띠 49년생: 처음에는 구설수와 시비가 수따라다. 61년생: 자기의 주장을 관철 시키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고집을 피우는 것 같이 비춰진다 주의하라. 73년생: 손윗사람과 함께하면 결과가 좋을 것이다. 85년생: 이성으로 인해 신경을 많이 발생하는 운이다.</p>	<p>▷호랑이띠 50년생: 동기간과의 디톡에 주의하라. 62년생: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듯 보이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주의하라. 74년생: 언쟁은 피하고 상황에 따른 센스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86년생: 내부적인 일은 마음을 비워라.</p>	<p>▷토끼띠 51년생: 적대적이었던 사람과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기회. 63년생: 시비가 수따라다. 75년생: 여자는 남성의 도움을 받으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운이다. 87년생: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는 운이니 화합을 도모하는 일에는 불리하다.</p>
<p>▷용띠 52년생: 다른 사람을 위한 상황이 되게 만들면 공이 돌아온다. 64년생: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76년생: 투박을 나타낼 수 있는 운이다. 88년생: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도와주니 좋은 결과를 얻는다.</p>	<p>▷뱀띠 53년생: 결과 속이 다르니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65년생: 때를 기다리며 내실을 다져 나가야. 7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진지함과 성실함이 더해져야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89년생: 언행에 주의하라.</p>	<p>▷말띠 54년생: 출타할 일이 있으면 각별히 주의해야. 66년생: 의도하지 않게 타인에게 불만을 줄 수 있는 운. 78년생: 사고수와 질병수가 따르니 문전은 삼가는 것이 상책이다. 90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지출을 삼가고 미루었다가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라.</p>	<p>▷양띠 55년생: 정신적으로 맑지 않은 운. 67년생: 언행에 주의해야 하겠다. 79년생: 약간의 구설이 따르는 운이나 자연스럽게 오해가 풀리게 되니 마을 쓰지 마라. 91년생: 금전운이 약하다.</p>
<p>▷원숭이띠 56년생: 문서로 인하여 구설이 발생할 수 있는 운. 68년생: 외로운 마음이 드는 시기다. 80년생: 언저 베풀면 베푼 것보다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92년생: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라.</p>	<p>▷닭띠 57년생: 금전적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운. 69년생: 하고자 하는 일을 밖으로 크게 추진하지 말라. 81년생: 기혼자에게는 부부불화, 미혼자에게는 이성과 만남이나 인연이 생길 수 있는 운이다. 93년생: 추위로 인한 질병, 특히 기관지에 유의해야 할 운.</p>	<p>▷개띠 46년생: 일찍 움직이면 얻을 수 있는 운이다. 58년생: 들어온 만큼 나가는 운이니 욕심은 금물이다. 70년생: 큰 성과를 욕심내는 사람은 불리하니 주의하라. 82년생: 운전은 가끔씩 삼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라.</p>	<p>▷돼지띠 47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운. 59년생: 지나간 일에 대한 구설수가 발생하는 운. 71년생: 이성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83년생: 윗 사람의 덕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니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p>